# 화마 딛고 새 희망 싹틔우는 의성 운람사

**1300년 역사 전통사찰…대웅전 등 전소**
**임시 건물 생활하며 삼성각서 법회·기도**
**등오 스님 "전국 각지 따뜻한 위로 감사"**
**"도량 불사 시동…산불 예방 대책 절실"**

의성=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현재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불로 전각 6개 동이 불에 탄 의성 운람사는 화재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재건 불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운람사를 덮쳤다. 대웅전을 비롯한 요사채 2동과 공양간 등 총 6개 동이 불에 타면서 1300년 역사의 전통사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삼성각과 해우소는 불길을 피했지만, 사찰을 지켜온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산불 발생 두 달을 앞둔 5월 16일 의성 운람사를 찾았다. 사찰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타다 남은 나무들과 시커멓게 그을린 흔적들. 불탄 목재들이 곳곳에 쌓여있고 담벼락엔 그을음 자국이 선명했다. '삼재 소멸', '건강 발원'이 적힌 기왓장들이 흩어져 있고 화마의 잔향은 아직도 코끝을 찔렀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현재 주차장 한편에 세워진 임시 건물에 머물며 사찰을 지키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집기와 건물이 불에 타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삼성각에서 법회와 기도를 이어가고, 장독대에 남은 장으로 소박한 공양을 준비한다. 화마를 피한 해우소도 있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지내다 열흘 전 임시 건물로 옮겼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기도하고 먹고 씻을 수 있는 여건만큼을 남겨준 부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전했다. 운람사는 산 정상에서 불과 10m 아래에 위치해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스님은 즉시 본사인 고운사에 상황을 알렸고, 고운사 스님들이 급히 달려와 대피를 도왔다. 아미타삼존불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주요 성보는 사찰 인근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이운해 피해를 면했다.

산불 진화 직후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등오 스님에게 큰 힘이 된 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위로였다. 모두가 제 일처럼 나서 도왔고, 멀리서도 운람사의 아픔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성금 전달과 진심 어린 격려가 깊은 감동을 안겼다.

"운람사는 지금 큰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불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등오 스님은 "사찰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고 산 중턱에 위치해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찰 환경에 적합한 묘목을 심고,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재건 불사'도 고민하고 있다. 그간 불편했던 공간 구조와 기능을 개선해 실용적인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등오 스님은 "새로 짓는 만큼 더 나은 공간으로 구성해 불자들이 편하게 찾는 사찰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 전국비구니회, 산불 피해 주민 위로…"일상 회복하길"

**5월 16일, 의성·안동·영덕 찾아**
**마을 4곳에 성금 총 4000만원**
**광용 스님 "기운 내시길" 격려**
**주민들 "큰 힘 주셔서 고맙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의 위로에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



4평 남짓한 임시주택을 둘러보는 비구니 스님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이하 비구니회)가 지난 3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스님들은 검게 그을린 산자락 곳곳에서 다시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듯, 주민들도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원했다.

비구니회는 5월 16일 의성 구계1리와 구계2리, 안동 일직면, 영덕 따개비마을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성금 총 4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현장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일양 스님, 수석부운영위원장 정관 스님, 부위원장 지효 스님 등 주요 임원 스님들과 지역 지회장 스님들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스님들이 향한 곳은 고운사 인근 의성 구계1리 마을. 산불로 마을 전체 23가구가 전소된 이곳은 여전히 잿더미가 남아 있어 참상을 짐작케 했다. 스님들은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성금과 함께 준비한 떡과 음료를 선물했다.

회장 광용 스님은 "산불 진화 후 위로차 고운사를 비롯한 사찰들을 찾았을 때, 스님들께서는 사찰보다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 걱정하셨다"며 "5000여 비구니 스님들께서 모아준 성금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랜 세월 살아온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그래도 부디 기운 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주민들은 군에서 지정한 숙소나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 중이며, 임시주택 건립이 마무리되는 1~2일 내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권웅기 구계1리 이장은 "불이 났을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스님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들은 구계2리 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전체 44가구 중 28가구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2주 전부터 약 4평 남짓한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스님들은 임시주택 단지를 돌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이날 성금 전달을 위해 대전에서 온 덕수암 주지 명은 스님은 주민 한 명 한 명의 손을 맞잡으며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아프지 말고 힘내셔라"고 진심을 담아 축원했다.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은 "산불 직후 의성을 방문했을 땐 마을이 삭막했는데, 이번에는 풀도 파릇파릇 올라오고 임시주택도 마련돼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스님과 불자들의 '십시일반의 힘'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꾸준히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으로 이동해 일직면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스님들을 반갑게 맞았다. 18가구가 전소된 이곳 주민들은 노인회관에서 생활하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몇몇 어르신들은 스님들은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분 노인회장은 "이렇게 먼 길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고, 오선자 할머니도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화도 한 번 안 내고 웃으면서 견뎠는데, 스님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비구니회는 58가구가 전소된 영덕 따개비마을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성·안동=김내영 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